

HEADLINE NEWS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시책 추진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市는 현재 에너지위기 극복과 장기 에너지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市의 첫 번째 대책은 '에너지 보전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인데, 그동안 시행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2002년에 첫째, 도시 열섬효과 완화를 위해 도시 녹화 프로그램에 25만 달러를 투입해 연간 5천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었다. 둘째, 최초로 '골든 힐 레크리에이션센터'에 '태양 채광창(active solar skylights)'을 설치해 주간 에너지 사용량을 95%까지 절감했다.

이에 앞서, 2001년에는 첫째, '포인트 로마 하수 처리장'의 처리수를 이용해 1.35MW의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둘째, 16,000개의 녹색신호등을 발광 다이오드로 교체해 연간 500만KW의 전기를 절약했다. 셋째, 시청 직원들의 2001년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 대비 13%까지 절약했다.

市의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약 260만 달러, 2002년도 초과 전력 판매 수입은 64만 달러에 이른다. 市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genesis.sannet.gov/infospc/templates/mayor/goal9.jsp)

HIGHLIGHTS

도시관리

- 1 2003년 세계 주요도시들의 생활비 조사결과 발표 (뉴욕)

도시환경

- 2 초등학생 대상 수자원보호 포스터 공모대회 개최 (애너하임)
- 3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 캠페인 실시 (탤러해시)

도시교통

- 4 개별 대중교통시스템의 통합 운영 추진 (멜버른)
- 5 버스 및 철도의 차량 색깔을 달리해 서비스유형과 노선 구분 (로스앤젤레스)
- 6 러시아워에 교통혼잡도로 이용차량을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높은 통행료 부과 (런던)
- 7 대대적인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뉴저지州: 트렌턴)
- 8 난폭운전자 신고제도 도입 (뉴저지州: 트렌턴)
- 9 운전 중의 위험행동 단속법안 추진 (뉴저지州: 트렌턴)

사회복지

- 10 선공기를 기증받아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 실시 (샌안토니오)

행.재정

- 11 비즈니스환경 개선 시책 적극 추진 (시애틀)
- 12 「6대 사이버 안전도시」 선정 (샌디에이고)
- 13 학교시설 유발부담금 부과제도 도입 검토 (앨라배마州: 헛츠빌市)

도시관리

세계도시동향

① 2003년 세계 주요도시들의 생활비 조사결과 발표 (뉴욕)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은 최근 세계 144개 주요도시들의 생활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본 동경이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지난해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Asuncion)은 144위로,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미국 뉴욕을 100으로 놓고, 각 도시별로 주택, 음식, 의류, 교통, 오락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한 생활비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지수로 나타내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상위 도시(동경 126.1점)와 최하위 도시(아순시온 36.5점) 간에는 약 3.5배의 차이가 있으나, 이 차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도시들의 2003년 생활비 조사결과 (TOP 20)		
순위 2003년 (2002년)	도시명	지수
1 (3)	동경	126.1
2 (2)	모스크바	114.5
3 (6)	오사카	112.2
4 (1)	홍콩	111.6
5 (4)	북경	105.1
6 (28)	제네바	101.8
7 (10)	런던	101.3
8 (9)	서울	101.0
9 (32)	취리히	100.3
10 (7)	뉴욕	100.0
11 (5)	상해	98.4
12 (8)	상트페테르부르크	97.3
13 (40)	오슬로	92.7
14 (11)	하노이	89.5
15 (62)	코펜하겐	89.4
16 (14)	호치민	88.5
17 (63)	밀라노	87.2
18 (13)	선전(중국)	86.7
18 (11)	광저우	86.7
20 (16)	화이트 플레인즈(미국)	86.2

도시 관리/도시 환경

세계도시동향

① 2003년 세계 주요도시들의 생활비 조사결과 발표 (뉴욕)

☞ 2면서 계속

기타 서울 경쟁도시들의 2003년 생활비 조사결과		
순위 2003년 (2002년)	도시명	지수
22 (19)	로스앤젤레스	85.6
23 (74)	파리	84.3
29 (15)	타이베이	83.5
30 (21)	샌프란시스코	83.0
32 (24)	싱가포르	82.8
38 (53)	자카르타	80.0
41 (99)	로마	79.0
50 (31)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77.3

(www.mercerhr.com/pressrelease/details.jhtml/dynamic/idContent/1096495)

② 초등학교 대상 수자원보호 포스터 공모대회 개최 (애너하임)

미국 애너하임시는 5월 수자원보호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13회 수자원보호의 달 포스터 공모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작년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애너하임 엔젤스(Anaheim Angels)가 홈경기 식전 행사 때 그라운드에서 트로피를 수여했다. 입상작들은 5월 한 달간 시청 로비에서 전시되었으며, 시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수돗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애너하임 공사는 효과적으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포스터 공모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가 수자원 보호 기간을 통해 물 절약을 강조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향후 수자원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현명한 물소비의 생활화 및 수자원 보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www.anaheim.net/utilities/news/pr_posterwin03.htm)

도시 환경/도시 교통

세계도시동향

③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 캠페인 실시 (탤러해시)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Tallahassee)市에서는 최근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과 'Federal Alliance for Safe Homes'가 공동으로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홍수발생 지역에서의 차량 운행 및 보행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Turn Around, Don't Drown'이라고 써어 있는 포스터, 차량 부착용 스티커, 안내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있다.

최근 3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7명으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관련 사망자 중에서도 범람 지역에서의 운전 및 보행에 의한 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캠페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www.noaanews.noaa.gov/stories/s1150.htm)

④ 개별 대중교통시스템의 통합 운영 추진 (멜버른)

호주 멜버른市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별업자에 의해 운영되던 대중교통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이 사유화되어 각각의 대중교통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승 등 정보 제공이 미비하고 요금체계가 상이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Metlink」라고 불리는 이 제도에 따라 버스, 트램, 철도가 기존 체제는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市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철도는 파란색, 트램은 녹색, 버스는 주황색으로 색상을 통일하고, 웹사이트 및 안내센터를 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주요 교통축 1곳에 시범 운영될 계획이며, 대상지역에 한해 가구통행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www.heraldsun.news.com.au/common/story_page/0,5478,6565618^2862,00.html)

5] 버스 및 철도의 차량 색깔을 달리해 서비스유형과 노선 구분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중교통운영기관인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버스 및 철도차량을 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해 도색하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그램을 빠르면 금년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광역버스, 지선버스 등은 서로 다른 색으로 도색하고, 버스정류장도 운영노선과 연계되는 색깔로 새롭게 꾸밀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차량의 색깔만으로도 손쉽게 노선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사용중인 지하철 로고 'M'자 또한 다른 상업용 로고와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이다.

(www.mta.net/press/2003/06_June/mta_089.htm)

6] 러시아워에 교통혼잡도로 이용차량을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높은 통행료 부과 (런던)

영국 정부는 최근 인공위성으로 차량의 행로를 추적, 러시아워에 교통혼잡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주행거리가 아니라, 차량이 어느 시간에 어느 도로를 주행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국의 도로 이용이 무료이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통근 및 통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혼잡한 도로 및 시간대에 운행할 경우 통행요금을 내게 된다.

변동통행료 부과 제도가 도로 건설 및 연료 소비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이를 위해 운전자들의 모든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변동통행료는 현재 런던에서 실시중인 혼잡통행료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현재 市는 평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5파운드의 통행세를 부과하기 위해 700여대의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체크하고 있다. (Guardian, 2003. 6. 6)

7 대대적인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뉴저지주: 트렌턴)

미국 뉴저지주 교통부는 도로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내 도로에 도로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500개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사상자가 발생한 최근 2건의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안전띠 매기’, ‘안전거리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판 설치에 약 5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주당국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이 도로상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교통부 웹사이트, 교통방송, 도로정보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www.state.nj.us/transportation/press/2003releases/060503.htm)

8 난폭운전자 신고제도 도입 (뉴저지주: 트렌턴)

미국 뉴저지주는 난폭운전자로부터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난폭운전자 신고제도를 최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들은 운전 중에 난폭운전자를 발견하면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 전화번호 77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난폭운전차량을 신고할 때 해당차량 번호와 차량의 특징, 운전중인 도로 등을 알려주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이 이를 단속하게 된다.

주교통부는 주요 도로에 이 제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가변 도로정보안내판을 통해서도 난폭운전자를 신고해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 주당국은 이 제도가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많은 신고전화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www.nbc10.com/traffic/2243849/detail.html)

9] 운전 중의 위험행동 단속법안 추진 (뉴저지주: 트렌턴)

최근 북미볼보자동차와 미국자동차협회, 'Partners for Highway Safety'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90% 이상이 운전 중에 과속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91%가 지난 6개월 동안 운전 중에 적어도 한번은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73%가 과속운전을 했고, 59%가 운전 중 음식을 먹었고, 37%가 휴대전화로 통화했고, 28%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26%가 방향등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었고, 14%가 운전 중에 신문이나 책을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1%는 자동차가 과거에 비해 더욱 안전해졌으며, 57%는 도로가 더욱 안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만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위험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Mason-Dixon Polling & Research'에 의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16세 이상 운전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의 오차 범위는 $\pm 3\%$ 이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에서는 운전 중의 위험한 행동을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을 보다 강화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해,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운전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美도로 교통안전국은 美전역에서 경찰에 보고된 전체 교통사고 중 적어도 25%가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ww.azcentral.com/news/articles/0527SafeDriving27-ON.html)

(www.nj.com/statehouse/ledger/index.ssf?/base/news-1/1052462283124961.xml)

④ 선풍기를 기증받아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 실시 (샌안토니오)

미국 샌안토니오(San Antonio)시는 사회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선풍기를 기증 받은 후, 이를 무더위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Project Cool」 프로그램을 올해로 6년째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소방서에서 선풍기를 기증 받으면,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이 선풍기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선풍기를 나눠줄 때에는 선풍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열사병 및 탈진을 피할 수 있는 정보도 알려준다.

8월 15일까지 49곳의 소방서에서 선풍기를 기증받으며, 「Project Cool」에서는 시민들의 기부도 받는다. 선풍기를 받고 싶은 노인들은 직접 전화를 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5년간 2만대가 넘는 선풍기를 기증받아 노인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작년에는 4천여 대의 선풍기를 나눠주었다.

(www.sanantonio.gov/news/NewsReleases/nrProjectCool.asp)

④ 비즈니스환경 개선 시책 적극 추진 (시애틀)

지난 1년간 미국 시애틀시는 시의 Task Force팀의 제안에 따라 비즈니스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 획기적 창출', '도시교통인프라 재원 확충', '민원처리기간 단축', '비즈니스 도우미공무원 배치'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비즈니스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지역지구제의 단순화, 소상공인 민원을 위한 도우미 운영과 같은 중요사항은 이미 시행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South Lake Union 지역에는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을, Rainier Valley, Pioneer Square, University District에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낙후지역은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고용과 세수기반 확대를 추진 중이다. (www.seattle.gov/news/detail.asp?ID=3525&Dept=40)

미국 「6대 사이버 안전도시」 선정 (샌디에이고)

최근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은 샌디에이고시를 미국의 6대 사이버 안전도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번에 샌디에이고시와 함께 선정된 사이버 안전 도시들은 댈러스, 내퍼빌(일리노이주), 뉴욕, 시애틀, 수폴스(사우스 다코타주) 등이다.

이 센터는 시가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시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각종 프로그램에 기울인 노력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그동안 시는 성범죄자들이 있는 곳을 시나 카운티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지도 제공, 어린이에 대한 인터넷 범죄 대책반 구성, 카운티의 지방검사 프로그램 시행, 컴퓨터·기술범죄에 대한 하이테크대응반 구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온라인 안전 캠페인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www.sandiego.gov/city-manager/weeklyrpt.html)

미국 학교시설 유발부담금 부과제도 도입 검토 (앨라배마주: 헌츠빌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Huntsville)시는 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학교시설 유발부담금(school impact fee)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의회와 시학교위원회의 동의 하에 추진되는 이 제도는 신규 전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의 규모는 구매주택 가격에 비례해 책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주택개발 여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적절한 시행방안을 강구중이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397&state=1&res=1024)